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 방 부



전세계 80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에는 30명당 1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한국도 곧 노인인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헬스클럽에서 가끔 만나던 분들과 골프를 쳤다. “운 교수님과 골프 한번 쳐보는 게 소원”이라며 하도 억사를 부리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따라나섰다.

그러나 골프를 치는 내내 그들은 서로를 ‘김 영감’ ‘이 노인’ 하고 부르는 게 아닌가? 다들 사회에서 한자리하는 분들이나, 평소에는 ‘이 사장님’ ‘김 이사님’으로 통했을 텐데 그들은 장난기가 발동해서인지 마치 노인정에서 만난 노인들처럼 서로 영감, 노인 하며 재미있어 했다.

나도 그날만큼은 ‘윤 영감’으로 통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영감’이라는 호칭이 싫지 않았다. 이젠 나도 나이를 먹어서일까?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영감이란 말이 오히려 정답게 느껴졌다.

따지고 보면 나도 영락없이 영감이야. 이미 손자 손녀가 있고 환갑도 지났으니

할아버지가 아닌가. 조선시대 같으면 이미 황천객이 되어 제사상 받들 나이이고, 1950년대만 해도 틀림없이 뒫방 늙은이가 되었어야 할 나이이다.

그날 골프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하

할아버지가 아닌가. 조선시대 같으면 이미 황천객이 되어 제사상 받들 나이이고, 1950년대만 해도 틀림없이 뒫방 늙은이가 되었어야 할 나이이다.

그날 골프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하

‘영감님의 증거’

제한다는 유체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대의 청년보다 60대 노인에게서 더 심심한 청춘을 발견할 수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그러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가슴속에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과 인생을 헤쳐나가는 용기, 삶을 이끌어가는 강한 힘이 있다면 언제까지나 젊은 청춘으로 아름답게

늙어갈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을 늙음에 대한 각자의 철학이다. 미국의 낭만파 시인 롱펠로(Longfellow)는 비록 머리칼은 하얗게 세었지만 또래의 친구들보다 훨씬 밝고 싱그러운 피부를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냈다. 하루는 친구가 와서 비결을 물으니 “정원에 서 있는 나무를 보며 이제는 고목이지, 그러나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어 그것이 가능한 건 저 나무도 매일 조금씩 계속 성장하기 때문일세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국가에서 주는 경로우대증이 있지만 노인이라는 것이 싫어서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사용하지 않고, 지하철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해도 사양하고, 젊은 오편 또는 아저씨로 불려지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꼭 그렇 필요가 있을까? 인생은 여차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이니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고 그렇게 서러워 할 이유는 없다.

영감! 이 명칭이야말로 조물주가 수여하는 인생 최고의 훈장이다.

(가천의과대학 교 부총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실

온실가스 감축 지역 기업 손실 최소화해야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고려했던 세 가지 안 중 가장 강한 것으로 배출전망치(BAU) 대비로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온실가스의 30%를 감축하는 수준이고 개발도상국이 권고받고 있는 최고치다.

국내 기업들은 4% 감축안이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최대치로,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정부 안에서도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4% 감축은 결코 호락호락한 수준이 아니다. 또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도 커다란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전 효철

진료하다 보면 “어디가 불편하세요?”라는 질문에 “제 병은 좌골 신경통인데 잘 낫지 않아요”라고 대답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이런 환자들은 자신이 좌골 신경통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좌골 신경통이란 말은 병명이나 허리에서부터 엉덩이와 다리의 후, 측면부를 따라 퍼져 내려가는 혹은 올라가는 통증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으로 일종의 증상표현이다.

좌골 신경통이란?

좌골 신경은 우리 몸의 가장 크고 굵은 신경 중의 하나로, 다리의 뒷면과 무릎 아래의 신경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좌골 신경통이란 무릎 아래로 방사되는 통증을 일컫는 말이다.

좌골 신경통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척추 질환이며, 그 중에서도 척추와 척추 사이에 끼어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문제가 되는 소위 추간판 탈출증(일명 디스크)이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위증, 종양(암종의 전이, 지방종, 신경초종, 수막종 등), 감염(디스크염, 골수염, 주혈관염 등), 동맥경화증 등이 있다.

따라서 치료 전에 먼저 이와 같은 통증이 왜 왔는지,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왼쪽 디스크란 척추 마디와 마디 사이에 들어있는 특수 조직을 말하는 것이며, 흔히 불림빠라고도 한다. 이 불림빠가 쿠션 역할을 해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척추마디끼리 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 해치는 음란사이트 단속 강화 시급

며칠 전 광고차를 사기 위해 검색을 하던 중 내가 필요로 하는 차량을 찍어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엉뚱하게도 웹 상업광고가 떴다. 화가 나서 그냥 닫아버리려고 하다가 언뜻 보니 놀랄게도 그 사이트는 여성이 직접 착용한 속옷이나 스타킹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여성들이 입던 건지, 여성 속옷을 산 뒤 남성들이 입으면서 사람의 체취를 느끼게 한 뒤 팔아먹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찾는 변태들이 있다는 게 기막혔다.

또한, 그런걸 아예 구입 해다가 파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불개성화 되고 성적 취향으로만

기고 박득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재난은 상존해 왔다. 일부 도시는 재난을 번영의 기회로 삼아 도시문화를 찬란히 꽃피웠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상이한 재난대응 방식은 인간의지가 재난극복의 관건이라는 극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반복되는 홍수로 경작지가 물에 잠겼지만, 침수된

인간 중심의 방재도시 만들기

농경지를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유자간 분쟁이 없도록 측량기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세계적인 토목기술을 가진 도시가 됐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자연 재난을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횡포’, 두려운 대상으로 여긴 탓에 삶에 좌절하면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인류는 과거보다 대형화되는 재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지난 9월 30일 인도네시아의 서(西)수마트라는 이를 연속 강진으로 8만여 채 건물이 무너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난 이후 불면증과 신경쇠약 등의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의료지원은 이뤄지지 않아 지금은 파와 눈물로 얼룩진 잿빛 도시로 변해 버렸다.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재해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거대한 재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현실적인 재난피해 보상은 물질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정신적인 위상을 도외시한 이런 현실 때

화재 위험 많은 펜션에 소화기도 없어서야

얼마 전에 가족 모두가 함께 무주의 한 산자락에 자그마한 펜션을 빌려서 나들이를 갔다. 저녁시간이 되어 밥을 지어 먹고 밖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옆의 펜션에서 불이 났다며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났다. 얼른 뛰어가 주변의 소화기를 찾았으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다. 수도물을 떠다가 퍼붓기에는 늦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적으로 나는 남편더러 차 안의 트렁크에 실려있는 차량용 비상 소화기를 갖다 쓰라고 외쳤다. 남편이 쟁짜기 뛰어가 그걸로 화재를 막았지만 정말 큰일날 뻔했다.

화재를 낸 그 사람의 잘못도 컸지만 더 큰 문제점은 그런 바베큐 시설을 비치하면서 주변에 소화기 하나 없었다는 점이다. 바베큐를 구워먹을 수 있는 그릴이나 드럼통은 설치하면서, 그리고 그 바닥은 펜션이라는 특징 때문에 통나무 재질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화재에 너무나 취약한데 거기에 대비할 여건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었다니 너무 심한듯했다.

펜션은 여전히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펜가 대책이 필요하다.

▲천강희·광주시 북구 각화동

세계 최저 출산율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라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이 전 세계 평균(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2명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1.2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 5년간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로만 놓고 보면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인구가 2050년에는 4천410만명으로 감소함으로써 세계 4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돼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케 한다.

지금의 저출산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으면 오는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초과하는 인구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2018년부터는 총인구도 감소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내수 위축과 노동력 저하로 잠재성장률은 현재의 4.6%에서 2020년 대에는 2.9%로 내려앉을 것으로 우려된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

無等鼓

“공기에는 주인이 없다. 내가 공기를 오염시키더라도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다. 적어도 지난 1991년 노벨경제학수상자 로널드 코스 박사가 ‘오염권 시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통했다.

코스 박사는 환경이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환경에 대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여기서 출발해 내가 나의 생산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 나의 생산이 환경에 미친 영향도 책임져야 한다는 데까지 이론을 발전시켰다. 기업이 오염을 줄이도록 하려면 나의 생산이 외부에 초래한 결과, 즉 오염·경관파괴·소음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됐다. 유명한 ‘교토의정서’다. 교토의정서는 2012년까지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했

‘산소 배출권’



다. 또 감축에 성공한 나라들은 감축한 양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주식이나 펀드처럼 사고팔 수 있게 했다. ‘오염권 시장’이 생긴 것이다. 감축에 실패할 경우 배출권을 사도록 한 탓에, 온실가스를 주로 배출하는 기업에게 그만큼의 경제적 부담을 지게한 결정이었다.

우리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30% 줄이기로 확정했다.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목표치다. 내년부터 강도높은 에너지 절감에 나서야 하는만큼 지자체나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는 부담이 더 크다. 정유·화학·철강 등 에너지 소비 업종이 집중된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 1위이기 때문이다. 농경지와 미개척 지역이 많아 전국 최고의 산소배출량을 자랑하는 전남으로선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산소 배출권’이라든 인정받아야지 가만히 있겠다. 지역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겠다.

/김주경 경제부장 jjnews@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